

전남도·지역 국회의원, 현안 해결·국비 확보 '원팀' 공조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원팀' 공조에 나섰다.

전남도는 24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 김원익·주철현·조계원·김문수·권항엽·이계호·문금주·박지원·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책 건의 8건, 법률 제·개정 5건, 국고 건의 53건을 설명하며 "미래 100년, 전남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원해줘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수소, 문화콘텐츠 등 5개 산업 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며 "우주항공, 바이오, 에너지산업 등 비교우위 강점을 가진 다른 산업에 추가 지정되고 앵커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

가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차전지 연관기업을 포함한 수소·기능성화학 등 86개 첨단소재 기업과 투자유치를 조율 중이다. 기존 산업 분양률이 97%에 달해 산업용지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순천·광양 일원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추가 지정되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순천·광양 일원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추가 지정,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전

●민주 전남도당·예산정책협의회

정책 건의 8건·법률 제개정 5건·국고 예산 53건 협력 모색 김지사 "균형 발전·자치분권 실현 핵심 사업 지원을" 요청

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인공지능(AI) 첨단 농업 융복합 지구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 호남권 SOC 국가계획 반영 등 현안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 마중물이 될 전남의 도로·철도 환경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며 "정부의 5개년, 10개년 국가계획

수립 단계에서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필요성과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인구감소지역 법 개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5년 정부예산안 분야별 건의 사업은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총사업비 485억원 중 20억원 요구) ▲전남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

축(490억원 중 26억원) ▲미래에너지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460억원 중 24억원)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172억원 중 30억원) ▲인공지능 첨단첨단산업융합지구 조성 타당성용역(5천억원 중 3억원) ▲국립 김산업수출진흥원 및 대규모 마른김 물류단지 조성(1천억원 중 17억)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대응 양식어장 구조 개선(600억원 중 70억) ▲전남권 농산물 비축기지 구축(250억원 중 10억원) 등이다.

SOC의 경우 ▲호남고속철 2단계(2조 8천100억원 중 5천624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6천974억원 중 90억) ▲북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1천700억원 중 1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광양 공업용수도 사업 ▲화순탄광 경제진흥원사업 등의 조기 통과와 내년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안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정 기자



24일 오전 서울 국민일보 백원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김영록 지사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예산 미확보 김지사 공약 이행 적신호"

김호진 도의원 "재정 필요 사업 중 11건 확보 안돼" 지적

전남도의회 김호진(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은 지난 23일 기획재정실 업무보고에서 "민선 8기 김영록 지사 공약 중 11개가 재정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김 지사의 공약은 남해안 우주산업 벨트 조성, 서남권 원자력·화력원광주·전남 공동유지, 글로벌 데이터센

터 클러스터 조성, 목포항 서남권 핵심 산업지원 중심 항만 육성, 그린수소 전용부두 조성, 국립 갯벌습지 정원 조성 등이다.

또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광주-전남 고속철도망 확충, 청년창업 확산을 위한 창업 중심대학 유치, 국립 전남 의과대학 유치 지원 등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남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공약들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정상 추진이라는 문구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약 이행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22개 시·군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 공약 이행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정 기자

도,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전남도는 24일 마이스 관련 전문가, 전남관광재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마이스(MICE)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

bition&Event)의 영문 첫 글자를 따 만들어진 용어다. 단기간 국제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규모로 유치해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이날 보고회는 과업의 범위, 수행 내용, 추진 방향 발표와 관계자 토론·의

견 수립을 통해 연구용역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마이스산업의 지속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및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 마이스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마이스산업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미래먹거리 산업 'K-방산' 시장 진출 도전

6월 용역 착수...내년 방산 혁신 클러스터 공모 추진
순천·고흥 중심 우주항공 특화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전남도가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먹거리로 떠오르는 '케이(K)-방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기반의 최첨단 K-방산 중심 거점 육성을 위한 '전남도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기초와 국내외 시장 분석, 전남의 여건을 진단한 후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방위산업 청이 주관하는 2025년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유치가 뛰어들겠다는 구상이다.

방산혁신 클러스터는 2020년부터 전국 6개 지역에 방위산업 네트워크를 구

축한다는 목표로 지역 기반의 중소·벤처 기업에 국방 연구개발(R&D) 기술 지원, 벤처·창업 지원, 유망 중견기업 유치 등을 통해 방위산업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되면 방산종합지원센터 건립, 장비·시설 구축, 특화연구소 운영, 창업 지원 등 5년간 국비 24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2020년 경남도·창원시(시범사업)를 시작으로 2022년 대전시(드론 특화), 2023년 경북도·구미시(유무인 복합체계 특화)까지 총 3개 지역이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통해 방위산업을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산업부는 2027년까지 세계 4위 방산강국 도약을 목표로 첨단방산 5대 분야(우주·인공지능·유무인 복합체계·반도체·로봇) 소재 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핵심 기술에 2조원 이상 민·관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경산·충청권 위주로 발전한 방위산업에 도전장을 내고 국가산단 예타 면제 등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우주발사체 산업, 전남의 핵심 주력산업인 광양만권 소재부품 산업 등과 연계해 순천시·고흥군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특화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산·학·연·관·군 업무협약과 전문가 토론회, 국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국적 불 조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